

복합탄성포장재 KISS 세미나 11월29일 개최

한국복합탄성포장공업협회는 11월29일 SETEC(서울무역전시) 컨벤션홀에서 복합탄성 포장재 성능 및 품질 기준안 KISS 규정 발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.

협회와 체육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복합탄성포장재의 품질 및 성능기준(KISS)규정을 발표하는 기술세미나는 관련기관·학계·연구기관·산업체·실수요자 등을 초빙해 개최한다.

2000-2007년 전국 초·중·고·대학교·일반운동장 등 총 700여곳에 육상경기용 우레탄 트랙, 다목적구장, 인조 잔디구장 등이 시공되고 있는 가운데 복합탄성체에 대한 성능 및 품질관리 규정이나 규격이 전무해 탄성 포장재의 관리방법 및 기법, 품질과 성능보증 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논의돼왔다.

이에 따라 협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체육과학연구원에서는 2006년 6월경 양자 협의 하에 복합탄성포장재 품질 및 성능기준안(KISS 규격안) 제정을 위한 기술용역계약을 산·학 협동차원으로 2006년 8월31일에 체결하고, 2007년 8월 말경 복합탄성포장재의 성능 및 품질관리 기준인 체육과학원 KISS규정을 완성했다.

협회는 복합탄성포장재의 품질 및 성능기준(안)을 KISS 규정(한국체육스포츠시설관리규정)으로 발표하고, KISS 규정을 근간으로 2008년 초 KS규정 및 RS규정까지도 단계별로 신청할 계획이다. <김 은 기자>

<화학저널 2007/11/23>